

Original Article

한외과대학에서의 한외과 수업 만족도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황인준¹, 박민령¹, 이지원¹, 지규용², 김선경³, 권찬영⁴,

¹ 동의대학교 한외과대학, ² 동의대학교 한외과대학 병리외감병학교실, ³ 동의대학교 한외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 ⁴ 동의대학교 한외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 students in classes of pre-Korean medicine

In-Jun Hwang¹, Min-Ryeong Park¹, Ji-Won Lee¹, Gyoong Yong Chi², Seon-Kyoung Kim³, Chan-Young Kwon⁴

¹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²Departments of Pathology,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³Departments of Medical Education,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⁴Departments of Oriental Neuropsychiatry,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Received: August 16, 2023
Revised: December 31, 2023
Accepted: December 31, 2023

Equally contributed first authors:
In-Jun Hwang & Min-Ryeong Park

Corresponding Authors:
Seon-Kyoung Kim
Departments of Medical Education,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52-57, Yangjeong-ro,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pietas@deu.ac.kr
Chan-Young Kwon
Departments of Oriental Neuropsychiatry, Dong-Eui University College of Korean Medicine
52-57, Yangjeong-ro,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beanalogue@naver.com

Background: Recently, Korean Medical Colleges are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medicine (KM) education. KM, which freshmen encounter, is a potentially unfamiliar discipline to them, and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 of KM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Korean Medical College students in the pre-KM curriculum.

Methods: This qualitative study used focused group interview as the methodology. Six students recrui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participated in two rounds of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Each round lasted about 2 hours. The subjects'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factors with the pre-KM curriculum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Results: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pre-KM curriculum were classified into academic, educational, and personal factors. The satisfaction factors included individualization-oriented characteristics of KM and friendly personal background to KM. As dissatisfaction factors, the unfamiliarity of knowledge related to KM and the conflict between knowledge systems were emphasized.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complained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education they had received through high school and that of KM was not well resolved. The reasons included unclear concepts and theories, the burden of failure, and the burden of memorization-oriented learning.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satisfaction factors and dissatisfaction factors investigated showed complex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and the definition and standardization of some ambiguous concepts, mitigation of the burden of failure, and understanding-oriented learning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to improve KM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KM's curriculum in the future.

Keywords: Curriculum satisfaction survey, Focused group interview, Knowledge system conflict, Korean medical education



서론

한국은 1951년 한의사 면허가 제도화된 이래로 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분되는 이원적 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¹ 교육기관 역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넓은 의미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수자의 활동과 자세 및 교육접근 자세를 포함하는데,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의과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과 2학년과 본과 4학년 과정으로 구성되며, 학습량이 많고 학습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유급제도가 운영된다는 점 등에서 공통적인 학업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다.² 하지만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의학과 의생명과학을 “한의학 기초”로 분류하여 전공과목으로 함께 교육하므로,³ 교육접근 방법의 차원에서는 간극이 있다. (Supplementary 1). 의학이라는 공통된 학문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에서의 인식체계도 다를 수 의미하는데,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인식의 차이는 곧 의료행위의 차이를 낳는다.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양의 학문체계를 토대로 초·중·고·대학교에서 모든 정규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응용과학으로서 유일하게 동양의 학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의학적 사고체계는 교과과정의 구성에서도 큰 특징을 보인다.

한의과대학은 기존 한의학 교육과정만의 개별성을 고찰하고, 의학교육의 보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세계의학교육협회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하여 제작된 교육인증기준(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KAS)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편과 관련 인증이 이루어져 왔고,⁴ 한의과대학에서도 개별적으로 한의학 교육 중 전반적 교육과정 혹은 단일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시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한의학 교육에 대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⁵ 교육과정 만족도 영향 요인,⁶ 한의학과 한의학교육에 대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⁷ 그리고 원전과 의사학 교육에 대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⁸ 등이 이루어졌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이러한 학업 만족도 조사 실적을 바탕으로 자체 보고하고 이를 교육 개편에 반영하고 있지만,⁴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에 2.44점에서 2.87점으로 보고되어 모든 항목에서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따라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연계열 학업우수 고등학생은 성적이 높을수록 의학 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¹⁰ 하지만, 의과대학의 경

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신입생이 다양한 이유로 입학 1년 이내에 기대와는 다른 현실 속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보고가 있다.¹¹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역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학했음에도 예과에서의 이탈률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Supplementary 2). 하지만 아직까지 한의학예과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업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시도는 부족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만족도 연구는 대부분 양적연구로 진행되어왔으나,¹² 관련 요인의 질적인 탐구는 드물게 시도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일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도구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2022년 동안 D대학교 한의학예과 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현 예과 2학년 또는 본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한의학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경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소수의 학생들을 모집하였고, 모집된 학생들이 지인을 섭외하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예과 2학년 학생 4명, 본과 1학년 학생 2명으로 총 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 연구 설계

질적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양적 연구에서는 살펴보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¹³ Stake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주요한 맥락 안에서 사례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한 사례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연구하는 것으로,¹⁴ 본 연구는 FGI를 질적연구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FGI는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끌어내어 특정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이다. FGI는 특정 집단을 반드시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터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주어진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므로¹⁵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참여한 학생들 6명 모두 1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동시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FGI는 2023년 2월 6일과 2023년 2월 16일 총 2개의 라운드로 진행되었으며, 1회당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제 1 라운드에서는 한의예과 교육과정의 만족도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제 2 라운드에서는 제 1 라운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예과 교육과정의 불만족 요인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경험을 자유롭게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¹⁶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연구자는 연구자의 특정한 의도가 반영되지 않도록 FGI의 진행에 있어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 2 라운드 동안에는 면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와 제 1 라운드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가 사전자료로 제공되었다 (Supplementary 3).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FGI는 각 라운드에서 공통질문이 주어지고, 대화의 흐름에 맞추어 후속질문이 제시되는 반구조화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다. 제 1 라운드는 <교육 만족도 및 관련 요인 조사>라는 주제로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과 그 이유’를 공통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제 2 라운드에서는 제 1 라운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불만족 심층조사: 교육내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불만족의 추가적 요인’, ‘언급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불만족 요인으로 인한 애로사항’, ‘불만족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불만족 요인 해결방안’이 공통질문으로 제시되었다. 제 1 라운드에서는 2명의 연구자(IJ Hwang, MR Park)가 면담을 진행하였고 1명의 연구자(JW Lee)가 실시간으로 면담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 2 라운드에서는 3명의 연구자(IJ Hwang, MR Park, JW Lee)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은 연구 초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가 아닌 소수의 학생을 섭외하여 진행한 파일럿 면담을 통해 3명의 연구자(IJ Hwang, MR Park, JW Lee)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한의과대학 교원 및 의학교육 전문가인 2명의 연구자(CY Kwon, SK Kim)에 의해 검토되었다.

2차례의 면담은 모두 녹취 파일로 만들어 정리되었고, 녹취된 음성은 모두 전사되었다. 전사된 원자료는 분해된 후 상응성에 따라 의미단위별로 범주화하는 범주합산방식(categorical aggregation)으로 분석되었다.¹⁴ 이에 따라 면담에 언급된 발언들은 범주화되었으며, 분류 후 각 범주를 포괄할 수 있는 요인과 각 요인 간의 관계를 정렬하였다. 의미별 분류와 각 요인 간의 관계 정렬은 독립적으로 연구되었고 연구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 간의 토의, 제 3의 연구자의 중재 및 의학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 2 조 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로,^{17,1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3 조 제 2 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한다.¹⁹ 한편, FGI 시행에 앞서 연구참여자로 부터 연구 참여와 면담 내용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참여자들에게는 2 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이 보상으로 제공되었다.

결과

1. 한의예과 교육과정 만족 요인

연구 결과, 교육과정을 넓은 의미로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수자의 활동과 자세 및 교육접근 자세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요인은 크게 학문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가. 교육접근 방법으로서의 학문적 요인

(1) 개체화를 중시하는 한의학만의 장점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만족한다는 답변 중 한의학 학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학생은 환자마다 처방되는 한약의 약재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등,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자의 개체성을 고려하여 치료를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학문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용량의 약을 주는 것은 어쩌면 옳지 않잖아요 ... 사람마다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이 약재를 몇 그램 몇 그램을 주는 것보다는 한의학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서...” (한의예과 2 학년 D 씨)

(2) 쉽게 이해되고 납득이 가능한 생의학(biomedicine) 학습

일부 학생들의 경우 쉽게 이해되고 납득이 가능한 생의학 과목에 대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통계도 정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므로 강의를 듣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하였다.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너무 명확하고, 이미 수대에 걸쳐서 통계라고 하셨지만 그냥 표본도 너무 정확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는 공식을 적용하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한학과 1 학년 C 씨)

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문을 대하는 개인적 요인

(1)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향

또 다른 만족 요인으로는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인적 성향이 언급되었다. 본인이 스스로 수용적 성향이라고 밝힌 학생들은 한의예과 교육과정에서 별다른 혼란을

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불만족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 학생은 이에 더해 본인의 기존 지식을 토대로 의심을 하기보다는 수용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기를 선택한다고 밝혔다.

“저도 한의학 개론을 배울 때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의 학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을 잘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그게 수천 년의 결과가 집약된 결과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있으니 까 일단은 의심을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저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의학과 2 학년 D 씨)

(2) 한의학 지식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배경
한의학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배경도 만족 요인으로 꼽혔다. 한 학생은 본인이 한의학에 우호적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의과대학을 입학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일련의 충돌 과정이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가 되게 시골에 살거든요...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항상 약간 한의 학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크게 충돌도 없 었고, ... 솔직히 한의대 들어올 거면 다들 한의학을 사랑하는 걸 전제로 베이스를 깔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한의학과 2 학년 A 씨)

(3) 많은 학업량에 대한 필요성 인식

한 학생은 학업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불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해당 발언을 한 학생은 학업량이 늘어나는 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한다고 언급하 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므로 학업량에 대한 부담이 불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양 같은 것도 우리가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워야 된다...” (한의학과 2 학년 A 씨)

(4) 한의학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동심리

일부 참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변 한의예과 학생들의 한의 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반동 심리를 일으켜 한의학 교육에 대해 만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 학생은 한의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일부 주변 동기들에 대한 반발심으로 오히려 한의학에 대해 긍정적 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변에서) 싫어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더 좋아지게 된 것도 있 고, ...” (한의학과 2 학년 A 씨)

2. 한의예과 교육과정 불만족 요인

한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크게 학문적 요인 (교육내용)과 교육적 요인(교수방법)으로 분류되었다.

가. 학문적 요인

(1) 낮은 지식과의 조우

한의학과 과정에서 새로 접하는 지식이 낯설다는 점이 불만족 요인으로 수차례 언급되었다. 한의과대학 입학 전까지 학습했던 지식과 논리 전개 과정, 개념의 성질과 의미가 다를 경우, 낯설을 경험하고, 새로 학습하는 한의학 지식과 기존 선행 지식 사이의 간극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 학생은 한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서구적인 사회에서 서구적인 지식을 학습하다가 동양학으로 급격히 전환을 한다는 것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에는 어떠한 편견보다는 접해온 것에 대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충돌의 발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다른 학생은 현 세계는 생활과 문화, 사고방식 등의 방면에서 서양화가 되어가며,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된 상태에서 동양학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당연히 저희는 20년 동안 서구적인 것을 배웠는데 동양학으로 바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저희가 편견이 있다기 보다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 렇기 때문에 서구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의학과 1 학년 F 씨)
“... 그렇게 가치관이 생겼고 그렇게 세상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저희 에게 동양학은 정말 낯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과 2 학년 D 씨)

다른 한 학생은 한의학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순을 느끼거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때 모순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을 가리킨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직관적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 이 듭니다” (한의학과 2 학년 B 씨)

또한, 개체성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특성으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한의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한의학이 연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의학 자체가 개별화된 학문이니까 완전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의학과 2 학년 B 씨)

(2) 일부 난해한 한의학적 개념이나 이론

학생들은 한의학과 과정에서 한의학 지식을 학습하면서 느낀 불만족 요인으로 일부 근거중심의학에서 벗어난 한의학적 개념이나 이론을 수차례 언급하였다. 특히 일부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이론에 대하여 함의된 정의가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학업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일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기준의 불명확성이 걱정된다고 언급한 학생도 있었다.

“형이상학적인 게 많다 보니까 ... 그래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 채점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원전에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에 합의된 해석이 없어요.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침을 아래에서 위로 꽂는 것’이고 다르게 해석하면 ‘침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침을 그냥 직자로 놓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마다 합의된 게 없으니까 채점 기준이 다르고...” (한의학과 1 학년 C 씨)

(3) 논리 전개 과정에 대한 낯설

또다른 불만족 요인은 논리 전개 과정에 대한 낯설과 관련이 있었다. 한 학생은 일부 전통 한의학 이론 중 생리적 해석에서 인과론적 해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음양오행과 같은 이론으로 해석하는 목적론적 추론에서 학업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러한 추론 방식으로 인해 반증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인식도 학업 불만족의 요인으로 언급되었고, 다른 학생은 바뀐 시대에 맞는 이론과 추론 방식의 수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든 것을 그냥 설명할 수 있으니까 ... 다 그냥 목화토금수로 ... 그래서 좀 분류의 모호함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의학과 1 학년 C 씨)

“저희는 원전이나 어떤 고대 자료에 쓰여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사람이 바뀌었고 환자가 바뀌었으니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학과 1 학년 F 씨)

다른 한 학생은 개인적으로 동양철학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동양철학이 의학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저도 동양철학 엄청 좋아하고 교양과목으로도 몇 번 들었고...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의 원인을 왜 동양철학에서 찾는가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한의예과 2 학년 B 씨)

(4) 한의학 전통이론에 대한 연구 부족

한의학 전통이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도 학문적 차원에서의 불만족 요인 중 하나였다. 한 학생은 교수자와의 문답을 사례로 들어 한의학의 전통이론에 대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새로운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의학 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수님께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변하고 있는데 운기 학설에 대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새롭게 진행되는 연구는 없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 뭔가 사실 한의학 연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한의예과 2 학년 D 씨)

(5) 타학문과의 융합 및 발전 부족

다른 학문에 비해 한의학에 유독 학문적인 순수성과 배타성을 요구한다는 인식도 학업 불만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계가 침범이 되면 한의학은 한의학이 아니게 된다... 학문에 있어서 너무 순수성, 배타성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의학과 2 학년 B 씨)

나. 교육적 요인

(1) 임상과의 모호한 연계성

학생들은 한의예과 교육 내용과 임상 간의 연계성이 와닿지 않을 경우, 학업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한의학 기초 이론과 임상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이 학업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음이 수차례 언급되었다.

“여러 오행귀류라든지 군신좌사라든지 이런 상생상극 이론들은 ... 제가 나중에 치료에 있어서 활용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한의예과 2 학년 B 씨)

(2) 유급제도의 부담감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급제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자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분위기의 유발이 유급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 학생들은 앞서 지적된 일부 문항에 대한 채점기준의 모호함과 함께 유급의 부담을 가중해서 느낀다고 인식했다. 다른 학생은 유급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지 않지만, 인체를 치료하는 것과 연관 짓기 어려운 요소로 인해 유급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유급이라는 제도가 학생들의 입을 막는다고 생각해요.” (한의예과 2 학년 D 씨)

“유급제도 실시하는 것은 불만이 없는데... 유급제도가 적용될 때도, 내가 당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겠다 고 느꼈던 게... 그런 내용들을 인체 치료에 연결시켜 주신 적이 없으니까.” (한의학과 1 학년 C 씨)

(3) 암기 위주 학습에 대한 불만

학생들은 한의예과 교육 중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할 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부 한의학적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위한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현재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니즈와 교수자의 교육 간의 괴리가 있어 학업 상의 부담감을 경험함을 호소하였다. 또, 해당 학생은 암기해야 하는 학습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하는지, 중요도가 낮다는 의미인지 분별하기 어렵다고도 답하였다.

“근데 교수님도 ‘그냥 외워’ 이라고 넘어가셔서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맞는 방식인 줄 알았어요.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외웠던 것 같아요...” (한의예과 2 학년 A 씨)

(4) 시험과 강의 내용 간의 연관성 부족

시험과 강의 내용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학업 불만족의 요인으로 꼽혔다. 한 학생의 경우 강의 내용이 시험과

관련이 없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수업 내용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되어 학습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저희 학번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수업을 정말 안 듣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수업이랑 시험이랑 관련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 성적은 공부하는 게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고, 수업은 시험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한의학과 1학년 F 씨)

(5) 한자에 대한 부담감

한의과대학 입학 전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한자를 주된 교육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의예과 교육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도 있었다.

“언어의 문제가 제일 컸어요. 한자어가 너무 많은데 그런 한자어로만 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그냥 계속 읽어 나가시니까, 일단 언어가 이해가 안 되면 수업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한의예과 2학년 D 씨)

3. 한의예과 수업 불만족 요인에 대한 반응과 해결 시도

가. 반응

(1) 혼란

학생들은 한의과대학 입학 전까지 학습한 지식과 한의예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지식 간의 간극으로부터 낯설음을 느끼고 혼란을 경험하였다. 일부 학생은 새롭게 접하는 지식에 대해 새롭게 접한 체계 수준의 설명으로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그냥 체계로만 들었을 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한의예과 2학년 D 씨)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논리로는 완벽한데, 예를 들면, 아이언맨이 갑옷을 입는 것이 영화의 논리 안에서는 당연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언맨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좀 심하지 않나...” (한의학과 1학년 C 씨)

(2) 의문

학생들은 한의예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일부 한의학 지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한 학생은 일부 한의학 지식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학생은 일부 정제되지 않은 교육 과정의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대중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내가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한의예과 2학년 B 씨)

“그걸 왜 학생이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에요. 정제된 교육 과정을 학부생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의학과 1학년 C 씨)

(3) 부당함

일부 학생들은 비합리적인 유급의 가능성, 채점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해 한의예과 과정에서 학습하는 지식

이 설명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다.

“유급이라는 게 그냥 말이 좋아서 공부를 독려하는 제도인 거지 사실은 어떤 학생의 1년을 그냥 내려버리는 건데 그런 권한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남용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예과 2학년 D 씨)

“철학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거고 우리 인간도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체를 이해하려고 한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냥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약간 유비추론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의학과 1학년 C 씨)

(4) 무기력

학생들은 상술한 인지적 반응들을 경험하였으나 선행 지식과 예과 과정에서 새로 학습한 한의학 지식 간의 간극을 봉합하는 데에 실패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지고, 무기력이 체화되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는 뭐 말해도 어차피 안 바뀌는 거. 이런 느낌으로” (한의학과 1학년 C 씨)

“대학교 1학년 때, 딱 한의학 접했을 때부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연습되어 있으니까 저는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고치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체화돼서.” (한의학과 1학년 F 씨)

나. 해결 시도

(1) 비판단적 수용

한의예과 과정에서 새로 받아들이는 한의학 지식 중 본인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지식에 대해 이해를 포기하고 비판단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언급되었다. 학생들은 교수자와의 능동적 소통의 부재, 그리고 유급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예과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록 비판단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였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의심을 잘 안 하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래 수동적인 성격이기도 했지만... 저는 XX 과목을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지에 적고 싶어도 적으면 유급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하나도 추가를 못 하겠어요.” (한의예과 2학년 A 씨)

(2) 판단 보류 및 우선선택

한편, 예과 과정에서 새로운 한의학 지식을 교육받을 때에 학습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지식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수용하는 경우도 언급되었다.

“일단 진급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외우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한의예과 2학년 D 씨)

“뭔가 ‘학년 올라가면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저는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을 했고, ...” (한의학과 1학년 F 씨)

(3) 거부 및 회피

새롭게 받아들이는 지식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또는 사유체계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지식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언급되었다.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배제하는.” (한의학과 1 학년 F 씨)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과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안 듣게 됩니다.” (한의학과 2 학년 B 씨)

심할 경우,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일부 지식에 대한 학업을 포기하여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며 이로 인해 유급이나 반복적인 휴학을 겪는 학생들도 언급되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 공부를 안 하니깐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고 ... ‘내가 잘못됐었나 봐’, ‘내가 능력의 부재, 내가 능력이 없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 해서 심지어 휴학까지 하는 학생들도 봤기 때문에...” (한의학과 1 학년 C 씨)
 “저도 한 명의 사례를 아는 게, 이 친구가 몇몇 한의학 과목에서 엄청 괜찮지 못한 점수를 받고 공부하면서 엄청 괴로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한의학과 2 학년 B 씨)

비판적인 사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집단적인 관점에서 무비판적인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비판적인 사람이 여전히 비판적인데 단지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무비판적인 게 주류가 되잖아요...” (한의학과 1 학년 C 씨)

(4) 자의적 해석

한의학적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학생 본인이 각자의 방식을 통해 재해석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사례도 언급되었다. 생명과학적 지식과 연관지어 본인만의 규칙을 세워보는 학생들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냥 수열 같다? 생은 +1 이고 극은 -1 이고...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엄청 편하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한의학과 2 학년 A 씨)
 “저만의 규칙을 세워봤어요. 예를 들어서 정은 신에 저장된다고 하면 정은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물질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단백질, 호르몬 등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신은 신장에는 부신이 있고 부신은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성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데,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부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성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신이 약하면 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 생명과학과 한의학을 한 번 대조해보고 싶어서...” (한의학과 2 학년 D 씨)

(5) 능동적 이해 시도

학습의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부 한의학적 지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교수자 또는 외부 자료를 통한 이해 시도가 언급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교수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한의예과 교육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냥 책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을 계속 질문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한의학과 1 학년 A 씨)
 “제가 1 학기 때는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한의학과 2 학년 D 씨)

한 학생은 개인적으로 지식 간의 간극을 해결하고자 의학 관련 논문이나 도서를 읽어보는 등의 노력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의학 싫어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말해보면... 논문도 찾아보고, 실제로 학교에 있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하는 분도 많아요.” (한의학과 1 학년 C 씨)

4. 한의예과 수업 불만족 요인 해결방안

한의예과 수업 불만족 요인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한 해결방안은 크게 학문적, 교육적 개선 및 개인적 노력으로 분류되었다.

가. 학문적 해결 방안

학문적 불만 요인의 해결을 위해 합의되지 않은 일부 한의 학 전통 이론의 개념을 재정립 및 표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의학의 논리 전개 방식에 있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설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언급되었고, 한의학 전통 이론에 대한 연구와 재검증을 통한 해결 방안 등이 언급되었다. 이는 집단지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한의학의 학문적 토대를 현대적 시선에 맞게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1) 합의되지 않은 일부 전통 한의학적 개념과 단위의 표준화 및 재정립

일부 근거중심의학과의 간극이 큰 한의학적 개념에 대해 합의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한의학에서도 최소한의 합의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의학과 1 학년 C 씨)

(2)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체계

학생들 외에도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은 교수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는 肝木 이런 것을 배우지만 근데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아예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현대 의학이든 어쨌든 그분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한의학과 1 학년 C 씨)

(3) 주변국의 한의학과 회통(會通)

한의학 전통 이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대해 연구 관련 수업의 시수를 늘리고, 중국, 일본 등 전통 한의학 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주변 국가와의 회통을 통해서 학문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자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이는 의학연구에 대한 폭넓고 깊은 접근을 요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에서도 기초-임상-의료인문을 통합하는 학년별 연구과정 로드맵을 필요로 한다.

“논문 읽고 찾는 수업들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초에 예과 때부터 연구에 친한 사람들을 좀 많이 배양시키는 게...” (한의학예과 2 학년 B 씨)

“일본과 중의학 연구를 적극 흡수하는 것도 한의학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한의학예과 2 학년 D 씨)

나. 교육적 해결 방안

(1) 학생들의 선행 지식과 한의학 지식 간의 간극 인지

학생들은 선행 지식과 한의학 지식 간의 상충으로부터 혼란을 경험하므로, 교육 과정에서도 그러한 간극을 인지한 상태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처음, 받았을 때 받아들이는 충격, 이런 거 그냥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가장 작지만 더 필요하지 않나.” (한의학예과 2 학년 E 씨)

“서양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환자들이 서양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하고...” (한의학예과 2 학년 D 씨)

(2) 논리 전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한 학생은 낮은 지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의학 지식의 논리 전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의학이 “왜”가 없는 이유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나아가면 훨씬 더 학생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한의학이라는 게 귀납을 통해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량화 시킬 수 있을까’하며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한의학과 친해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의학예과 2 학년 D 씨)

(3) 경향성과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표현

한 학생은 일부 한의학 지식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경향성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구분한 표현이 사용된다면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통계나 근거가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은 확정적인 어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좀 더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아직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나온 근거는 없지만 임상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만 하셔도 제가 납득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한의학예과 2 학년 B 씨)

(4) 교육 내용과 임상의 연계성 강화

일부 학생들은 한의학예과 과정에서 교육하는 내용과 임상 간의 연계성을 교수자의 설명을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매모호한 서술들에서 어떻게 치료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나 생각의 단계들을 조금만 저희에게 알려주거나 설명해 줬다면 이걸 납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의학예과 2 학년 D 씨)

(5) 한글로 번역된 교재 사용

한 학생은 한의학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한의학예과 과정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교재를 사용하여, 한자에 대한 이해보다는 한의학적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먼저 우리말로 번역된 교재를 사용해서 먼저 일단 그 문장을 이해할 수는 있도록 해야 해요.” (한의학예과 2 학년 D 씨)

다. 개인적 노력을 통한 해결 방안

개인적 노력을 통한 해결 방안으로는 학생들의 비판적 수용과 학생 개인의 이해 시도가 언급되었다.

(1) 비판적 수용

일부 학생들은 낮은 한의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학생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인 수용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의학에 대한 사랑이랑 맹목적인 믿음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되 만약에 한의학에 틀린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한의학이 아예 틀린 것이 아니니까, 고칠 부분을 개선해서 더 믿을 수 있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연구에서의 개선일 수도 있고, 또 저희에게 와 닿기로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의학과 1 학년 F 씨)

“그런데 사랑의 방식이 너무 무비판적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한의학과 1 학년 C 씨)

(2) 학습 이해를 위한 주제적인 노력

한 학생은 만약 교수자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낮은 지식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그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사상적 충돌은 학생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교수님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르쳐주시려는 노력이 선행되고 정말 계속 변화하시고 발전하는 교수님이라면 그 안에서 겪는 사상적 충돌 같은 경우는 학생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의학과 2 학년 D 씨)

4) 기타 - 유급제도 대체

일부 학생들은 유급제도 대신 재수강 제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 학생은 특히 채점 기준이 모호한 일부 과목에 대해 유급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차라리 유급 없애고 재수강, 시험의 난이도를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한의학과 2 학년 D 씨)
 “채점 기준에 모호함이 생기잖아요. 이런 학문들의 유급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한의학과 2 학년 A 씨)

고찰 및 결론

1.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요인

본 FGI 에서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은 학문적, 교육적,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서로 관련되어 학생들의 학업 만족 또는 불만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교육적 요인인 '임상과의 모호한 연계성 인지'는 학문적 요인인 '논리전개과정에 대한 낯섦'과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었다. 일부 한의학 이론의 이해에 목적론적인 해석이 사용된다는 점,²⁰ 일부 명제는 오히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반증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²¹ 등이 학생들의 불만족과 혼란과 관련되었다. 이는 한의과대학 입학 전 교육과정에서 주로 학습해온 형식논리의 관점²²에서 보았을 때, 한의학의 대상세계가 개방복잡계, 비인과성 등을 포함하므로 엄밀한 조건을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²³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육적 요인인 '유급제도의 부담감'은 학문적 요인인 '일부 불분명한 한의학적 개념이나 이론'과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일부 불분명한 한의학적 개념이나 이론^{23,24}에 대해 여러 학파가 존재하는 등,²⁵ 합의된 지식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불명확성은 채점기준의 모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학생들은 유급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체를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변별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하였으나, 유급제도의 운영방식이 학생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²⁶ 강압적으로 인식된다는 점, 교수자의 권한이 강조되어 학생들이 유급과 채점 기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교육적 요인인 '암기 위주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한자에 대한 부담감'은 학문적 요인인 '지식의 낯섦'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낯선 지식 및 사유체계를 접하는 상황에서, 학업 내용의 이해를 위한 충분한 설명을 얻지 못하고 암기 위주의 학습이 요구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에 더해 일부 교재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도 학생들의 학업 불만족과 관련되었다.

한편, 만족 요인의 학문적 요인인 '개체화를 중시하는 한의학만의 장점'은, 불만족 요인의 학문적 요인 중 '한의학 전통이론에 대한 연구 부족 인식', '타학문과의 융합 및 발전 부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한의학은 맞춤의학^{27,28}으로, 환자 개인에 맞는 개별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만족과 관련되었다. 하지만 이 요인이 학업 불만족과 관련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즉, 일부 학생들은 맞춤의학에 대한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²⁷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의학 연구방법에 대해 개별화된 치료가 강조된다 하더라도 전통 한의학 이론에 기반을 둔 변증 진단이 일정 체계 안에 제한된 수로 존재하므로, 무작위대조군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Jeong 의 주장과 상통한다.²⁵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의학 및 한방의학과 같은 동양의학의 연구를²⁵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타 학문과의 학제간 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면담에서 언급된 한 학생의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순수성과 배타성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된다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 지평과 활용가능성을 넓히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2. 사유체계의 충돌과 반응

학생들의 학업 불만족 요인은 대개 새로운 지식 및 사유체계를 접하고, 사유체계의 충돌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FGI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모두 한의예과의 학업 과정에서 일종의 인지적인 충돌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사유체계와 한의예과에서 접하게 되는 일부 낯선 지식체계 및 사유체계가 상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충은 주로 기존 선행 지식과는 다른 지식의 성질, 특히 개념과 논리 전개 방식에서의 충돌로 구체화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상충을 동양과 서양의 대비를 통해 낯섦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양의 목가 사상가들은 객관적 '적합성'을 주장하였고²⁹ 공손룡과 헤시는 형식논리를 중시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 만큼,³⁰ 면담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낯섦과 혼란을 일반적인 한의학적 지식이나 동양의 사유에 대한 반응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학생

들이 상충을 경험한 대상은 학업 내용 중 일부 모호한 개념 및 형식논리학의 측면에서 논리적 엄격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로 분석되었다.

한의학 교육 외에도 물리학³¹ 등 새롭게 접하는 지식과 선행지식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지갈등이 발생한다.^{32,33} 하지만, 기존 사유체계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닌, 그 근간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34,35}에서 사유체계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롭게 접하는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지갈등이 유발될 경우, 적응적으로 자신의 인지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기존의 신념을 유지하며 관찰한 현상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³⁶ 이러한 현상이 본 FGI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에서 관찰되며, 그들이 경험한 사유체계의 충돌이 개념변화의 거부로 이어지게 된 경우도 존재하였다.

학생들이 사유체계의 충돌 시, 해당 지식의 수용여부를 판단한 기준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합리성과 논리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학의 理法方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론법인 類推(analogical inference, 類比推理)²⁰가 학생들에게는 논리적 엄격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Kuhn은 과학의 합리성이 성립하려면 공통의 언어와 일련의 가정들이 공유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²⁰ 본 연구의 면담에서도 학생들은 한의학 지식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일부 전통한의학 이론에 대한 ‘합의된 지식’의 부족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³⁷

하지만 학생들이 언급한 지식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개념이 명확하게 지시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형식논리학의 관점에서 논리적 엄격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이성주의에 기반한 학문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³⁸ 한의학 지식체계와 사유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서구적 전통에 의해서는 대체로 근원적인 물질의 요소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를 파악하고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고정된 모델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면,³⁹ 동양에서는 때에 따라 변화되는 주어진 상황에 맞도록 변화의 원리에 주목하여 운행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경향성이 있다.³⁹ 한의과 대학 입학 전까지 서구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지식을 쌓아온 학생들은 배워 온 지식의 형태가 대체로 고정적이었으므로³⁹ 이러한 한의학 지식의 명확하게 지시되지 않는다는 점이²³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으로서의 질적 연구는 FGI의 특성상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나, 양적연구와 다르게 학습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균열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서의 심도깊은 양적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가 학생들의 기존

개념과 한의예과 교육과정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일부 낮선 한의학 지식 중 어느 한 지식 및 사유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여부를 통해, 특정 가치판단에 우월성을 부여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선행지식과 한의예과 교육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일부 한의학 지식 및 사유체계가 서로 다르며,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충돌과 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극복하는 과정 역시 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의학에서는 고전과 성현에 대한 존경이 그들의 물려나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모호한 서술의 특성과 더해져²⁹ 명확성을 띄는 반증과 비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점에 대해서는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⁴⁰ 면담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일련의 충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선행지식 또는 기존 사유체계와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스스로 지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나아가 지식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학업 불만족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불만족 요인을 기반하여,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학생들이 경험한 사유체계의 충돌, 암기 위주의 교육,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한자 표기의 사용 등은 학업 불만족에 기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업에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가능한 간극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고, 한자 대신 국문 교재의 사용을 늘린다면 처음 접하는 지식에 대한 낯설과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의예과의 교육 내용과 임상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한의예과 학생들이 모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생명현상과 함께 교육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다.

둘째, 합의되지 않은 일부 모호한 한의학적 개념에 대한 정의와 표준화 역시 학업 불만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와 표준화를 전제로 한 한의학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FGI 연구에서 한의학 전통이론에 대한 연구 부족이 학업 불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일부 한의학 개념에 대한 정의와 표준화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연구의 축적과 교육에의 반영 역시 학생들의 학업 불만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교육실을 중심으로, 매 학기 기말고사 이후, 교수-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과정 만족도에 관해 성찰하는 워크숍을 정

기적으로 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교수회의 또는 교육관련 위원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셋째, 학생들은 유급제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경제적 및 학업 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재수강 제도와 같은 유급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특정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에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해당 과목에 한한 재수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도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을 변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모호한 채점기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유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채점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유급이 결정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유급 당사자는 유급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부담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모호한 기준은 실제로 유급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도 함께 갑작스러운 유급에 대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외국학교의 의학교육 평가사례를 검토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의 개선과 독립적으로, 학생 개인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한의학 지식을 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이되 비평적 사고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면담에서 학생들이 우려를 표한 수용태도는 무조건적 수용 혹은 거부였다. 한편, 이러한 학생 개인의 개방적이되 비평적 사고, 그리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교수자의 배려와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학생회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참여를 늘리고, 교수자-학습자간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계점

본 연구는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최초로 조사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인정된다. 먼저, 이 연구는 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학업 만족 또는 불만족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으로 일반화하여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학업 만족 및 불만족 관련 요인은 향후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 양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생생한 조사를 위해, 가장 최근에

한의예과 교육을 받은 현 예과 2학년 또는 본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한의예과 교육과정 경험에 대한 평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과로 진급한 이후, 과거에 수강한 예과 과목과 연계된 본과 과목을 수강하며 기존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고, 이러한 평가의 변화는 학업의 만족 또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예과 2학년 또는 본과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러한 시간에 따른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평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의 한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주요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과정에서 한의학교육 접근방법에 대한 만족도에서 개별적 요인으로는 학문적, 교육적, 개인적 요소로 분류되었으며, 각각 또는 상호연계되어 학생들의 학업 만족 및 불만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의예과 수업 중, 새로운 지식 및 사유체계를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체계의 충돌과 반응은 중요한 학업 불만족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외에, 유급제도, 암기 위주의 학습, 한자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안되었다. 셋째, 발견된 학업 불만족 요인을 기반으로, 일부 모호한 한의학적 개념에 대한 정의와 표준화 등 일부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 및 불만족 요인연구’의 의미는 향후 본 연구와 같은 주제의 양적연구 및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연구비 지원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out funding.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iD

- 황인준 <http://orcid.org/0009-0009-3762-3301>
- 박민령 <http://orcid.org/0009-0001-3425-9411>
- 이지원 <http://orcid.org/0009-0004-7986-7244>
- 지규용 <http://orcid.org/0000-0002-8192-3725>
- 김선경 <http://orcid.org/0000-0001-7022-0234>
- 권찬영 <http://orcid.org/0000-0003-0068-9904>

CRedit Statement

Conceptualization: SK and CK; Methodology, Software and Validation: SK and CK; Formal analysis and Investigation: IH, MP and JL; Resources, Data curation: IH, MP and JL; Project administration: SK, CK and GYC; Writing—original draft: IH, MP and JL; Writing—review & editing: SK, CK and GYC; Visualization: IH, MP and JL; Supervision: IH, MP and JL

Data Availability

The data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on reasonable request.

References

1. Lee D, Tchoe B. A Study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view of Integrating the Western and Korean Medicine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022;38:153–181.
2. Chun, K. H.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16(2):77–87.
3. Jo, H.-J. Exploring the conditions that will allow for chang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curricula – focusing on the integrated curriculum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20;33(3):63–89.
4. Evaluation IoKMEa. *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2*. 2021. 12. 2021.
5. Seon-Hyung Jeong, Jeong-Pil Kim, Yu-Jeong Kang, Hye In Jeong, KIM KYEONG HAN. A Survey of Recognitions and Satisfaction with Educ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20;24:49–56. <https://doi.org/10.25153/spkom.2020.24.3.005>
6. Young Kyu Park, Kyu Sang L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Students' curriculum of Korean Medicine College. *The Journal of Herbal Formula Science*. 2021;29:253–266.
7. Sungjun Joo, Eom Dong Myung, Song Jichung. A Research for Recognitions of Korean Medical Student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6;20:1–8.
8. Baik You-sang, Nam-il K. A Survey of the Students' Attitude towards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in Th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0;23:111–125.
9. Sungjun JooEom Dong Myung & Song Jichung. A research for recognitions of Korean medical student towa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ducation.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6;20(3):1–8.
10. Kim E-k.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Major for High Achievement Students in High Schoo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10;13:1–7.
11. Imperato PJ, Nayeri K. First year medical student experiences with being discouraged from entering medical school. *N Y State J Med*. 1991;91:243–244.
12. Young Kyu Park & Kyu Sang L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Korean medicine students' curriculum of Korean medicine college. *The Journal of Herbal Formula Science*. 2021;29(4):253–266.
13. Ragin CC, Press UoC.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14. Stake R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 1995.
15. Lederman LC. Assess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The focus group interview as a technique for data collection. *Communication Education*. 1990;39:117–127. 10.1080/03634529009378794
16. Morgan DL.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etc.]: Sage; 1997.
17. Ministry of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 2012.
18. Ministry of Education.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 2011.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33(2). 2022.
20. Chi GY. Concept of Science and Indices of Scientification in the Task of 'Scientification of Korean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9;33:303–310. <https://doi.org/10.15188/kjopp.2019.12.33.6.303>
21. Popper KR. *Unended Quest*. Fontana; 1976.
22. Lee M-K, Han S-W. History of Education, Science, and Physics of High School in Korea. *Journal of Science and Science Education*. 2018;43:117–139.
23. Chi GY.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Korean Medicine.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9;33:261–266. <https://doi.org/10.15188/kjopp.2019.10.33.5.261>
24. Ki CM. Eastern Epistemology and the 21st Century Civilization. 2007.

25. Jung KY, Go HY, Sun SH, Jeong JJ, Park JS, Song YK, et al.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for Clinical Research in Korean Medicine worldwide – Future Clinical Research Strategy I-. *Journal of Physiology &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2014;28:137-145.
26. Choi J, Son SL, Kim SH, Kim H, Hong JY, Lee MS. The prevalence of burnout and the related factors among some medical students in Korea. *Korean J Med Educ*. 2015;27:301-308.
<https://doi.org/10.3946/kjme.2015.27.4.301>
27. Verhoef MJ, Casebeer AL, Hilsden RJ. Assessing efficacy of complementary medicine: ad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the "Gold Standard". *The Journal of Alternative & Complementary Medicine*. 2002;8:275-281.
28. Mason S, Tovey P, Long AF. Evaluating complementary medicine: methodological challenge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BMJ*. 2002;325:832-834.
29. Jullien F, Tch-wan Park, Kim Y-s. *A Sage is without Idea: Or the Other of Philosophy*. Paju: Hanul; 2009.
30. Feng Y-l, Bodde D, Chung I-C.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Seoul: Hyungseul; 2007.
31. Kang J, Yoo 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gnitive Conflict Levels of Students Facing an Anomalous Situation Including Misconception and a Conceptual Change in Science. *New Phys.: Sae Mulli*. 2018;68:1116-1126.
32. Piaget J. *The Psychology of Intelligence* Paterson, NJ, Littlefield. 1963.
33. Piaget J, Brown T. The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s: The central problem of intellectual development. (*No Title*). 1985.
34. Dreyfus A, Jungwirth E, Eliovitch R. Applying the "cognitive conflict" strategy for conceptual change: Some implications, difficulties, and problems. *Science education*. 1990.
35. Kim J. The roles of critical thinking in cognitive conflict and conceptual change.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8;9:67-87.
36. Dole JA, Sinatra GM. Reconceptualizing change in the cognitive construction of knowledge. *Educational psychologist*. 1998;33:109-128.
37. Han, C.-H, Lee, S.-Y, Kim, J.-H. & Kim, Y.-K. Historical changes in weights and measures of herbal formulas in medical classics. *The Journal of Herbal Formula Science*. 2017;25(1):103-113
38. Hong YK. Scholarship as Annotation and Scholarship as Critique: Focusing on the Western Case.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1999;47:65-82.
39. Lee K-s. Study on the Concepts of Efficacy for China and the West in François Jullien's Comparative Philosophy.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2012:103-127.
40. Ahn BG. Scholarship as Annotation and Scholarship as Critique: The Case of Chinese Confucian Philosophy.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1999;47:83-94.